

교회의 일꾼

Servants of the Church

로마서 16: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7월 1일 설교

¹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뵘뵘을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²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³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⁴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람이 교회

교회가 됩니까? 보통 ‘교회’ 하면 건물을 많이들 생각합니다. 건물, 중요하지요. 주보에 건물 사진을 크게 실는 교회도 많습시다. 모여야 교회고 모이는 장소가 건물이다 보니 건물을 교회라 부르는 건 자연스럽습시다. 물론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요. 건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남의 건물에서 모여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건물에 비겨 설명하고 있습시다. 교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거기 보면 교회를 건물에 비기면서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돌 곧 모퉁잇돌이 되신다 했습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함께 모여 한 건물을 만들어간다 하였습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데도 건물에 비겨 설명하는 이유는 먼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와 계시던 곳이 성전이라는 건물이었기 때문입시다.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득 채우시는 곳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회가 바로 옛 성전과 같다는 말이겠지요.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자재가 있어야 됩시다. 기초는 돌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야 되고 벽은 벽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들고 또 지붕, 외장 재료 등 많이 필요합시다. 그런데 교회를 건물에 비겨 설명할 때는 재료가 꼭 하납시다. 뭘겠습시다? 자갈이지요? 태종대 자갈마당에 있는 그 자갈, 다른 말로 됩시다? 사람입시다. 선지자와 사도가 기초라 했으니 기초도 사람, 모퉁잇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 그리고 건물을 이루어가는 것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치고, 남자와 여자도 합치고, 주인과 노예도 합치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잘 생긴 사람 못 생긴 사람도 다 합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입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벽돌도 지붕도 외장재도 다 사람입시다.

현장 감독은 성령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엮어 한 건물 곧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으로 만드십시다. 우리는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와 내가 연결되고 우리와 저 사람이 또 이어지고 해 온 세계 성도들, 멀리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또 지금뿐 아니라 지난날의 다윗, 베드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 또 앞으로 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 건물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 건물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게 됩시다. 그게 교회입시다.

교회의 본질

오늘 우리 교회가 열두 돌 생일을 맞았습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가 뭔가 하는 생각을 해 봅시다. 교회가 뭔가, 도대체 뭐가 그리니치 한인교회입니까? 우리는 건물이 없으니 건물을 내세울 수는 없지요. 나중에 건물이 생겨도 건물을 교회라 착각해서는 안 됩시다. 사람이 교회라 했습시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교우들이 다 모여 그리니치 한인교회가 됩시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시다? 나 하나쯤 없어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시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면 나 한 사람이 빠지면 교회는 달라집시다. 완성이 안 됩시다. 이름이야 계속 그리니치 한인교회겠지만, 같은 교회는 아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있어야 우리 그리니치 한인교회가 됩시다.

지난 번 왔던 설교자가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다니는 곳이라 했습시다만 현실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시다. 이단이 아닌 다음에야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나 다 계시는데 왜 나는 이 교회 너는 저 교회로 갑니까? 사람 때문이지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교회는 어딜 가도 사람이 모인 곳, 너와 내가 모인 곳입시다. 아무도 없는 곳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법은 없습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살피 주는 건 주님을 보살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안 좋은 경우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면서 또한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 내용도 많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다룬 것도 많고 특히 특정인을 두고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편지라는 장르가 본디 사사로운 이야기를 많이 담게 되어 있으니 개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사람을 평가하고 또 안부를 주고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주님 명령이다, 하고 길게 쓴 글에 덧붙인 내용이니 개인 이야기에 그런 권위와 힘이 담겨 있습니다. 안부를 전하는 내용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지요.

아주 안 좋게 말한 사람도 몇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나를 버리고 갔다” 했습니다 (딤후 4:10). 이 데마라는 사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도 바울과 고난을 함께 하던 사람인데 (골 4:14) 복음이나 세상이나 갈등하다가 결국 세상을 택해 떠나버린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국 신문처럼 “김 아무개”나 “박 모씨” 같은 표현을 안 쓰고 그 사람 이름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더 나쁘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나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는데 주께서 그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빈다” 했습니다 (딤후 4:14-15). 알렉산더가 좀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리장색이라고 직업까지 밝히면서 디모데 너도 이 사람을 조심해라 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편지에다 이렇게 이름까지 밝혀놓고 이런 소리를 썼다가는 며칠 안 돼 변호사한테서 편지를 한 통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쁜 이야기를 온 교회에 보내는 공적인 편지에 그대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좋은 이야기는 덮어 놓고 싶겠지요. 비판을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자 하면서 입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벌주실 거니까 나는 가만있자 합니다. 그럼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한 때 교인이었던 데마를 비판하고 교회를 핍박한 알렉산더를 직업까지 밝혀 가며 비판하고 또 조심하라 했으니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과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비판해야 됩니다. 꾸중도 하고 무엇보다 잘잘못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밝혀야 됩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택했다는 걸 알아야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겠지요. 알렉산더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걸 모두에게 알려야 다들 조심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지목해 구체적인 충고의 말을 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아킵보라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 놓고서도 게으름을 부렸는지 “이건 아킵보에게 하는 말이다” 하고는 “그대가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시게” 하고 썼습니다 (골 4:17). 갈라져 싸우고 있던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사람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란다” 하고 썼습니다 (빌 4:2). 우리 같으면 이런 이야기는 공적인 편지에는 안 쓰고 따로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이 판단력이 모자라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 모아 건물 하나를 지어 가십니다. 숨길 게 있고 밝혀야 될 게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잘 가다가 걸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이 하나하나를 밝혀 결국은 보다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일꾼 뵈뵈

데마나 알렉산더처럼 안 좋게 말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편지는 그래도 정이 담기는 건데 웬만하면 좋은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게 좋겠지요. 편지 끝에 가서 안부를 전할 때 성도들을 바울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거의가 칭찬입니다.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뵈뵈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지요? 원문 그대로 하면 포이베가 되고 글자 수를 줄여도 피베가 되어야 맞는데 어찌다가 뵈뵈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와서는 이게 피비 (Phoebe)가 되었습니다. 여자들한테 꽤 흔한 이름인데 제 또래 한국 사람들은 피비 케이츠라는 배우를 기억할 겁니다.

포이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입니다. 거인족 티탄 열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뵈뵈 역시 신화의 시대인 이천 년 전에 신화의 나라 그리스에 살고 있었으니 여신 이름을 가진 게 이상한 게 없지요.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 이름을 미륵 또는 마야라고 지은 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믿어 신앙인이 되었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에스더도 이름은 이방 여신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되는 바람에 이방 신 이름 에스더가 오히려 신앙인이 좋아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뵈뵈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이 뵈뵈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뵈뵈 혼자 가져갔을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갖고 갔다면 뵈뵈가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뵈뵈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 합당하게 영접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뵈뵈를 잘 영접하는 일은 복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쓰긴 했지만 편지를 직접 전달하는 사람은 뵈뵈입니다. 사람들이 뵈뵈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직접 전달한 사람으로,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편지에 담긴 내용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뵈뵈를 잘 영접해 달라는 바울의 부탁에는 로마서에 담긴 복음을 잘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신뢰

바울은 뵈뵈를 잘 영접해 달라 부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뵈뵈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 달라 한 것입니다. 개인의 청탁 같지요? 주 안의 자매로 추천하면서 동등한 성도로 잘 영접해줄 뿐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달라 한 이 부탁에는 뵈뵈를 향한 바울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뵈뵈가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이다, 뵈뵈가 하자 하는 게 있으면 그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기에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라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근거가 이어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뵈뵈는 겐그레아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겐그레아는 사도 바울이 이발을 한 곳입니다 (행 18:18). 바울이 오래 전에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해 나실인처럼 머리를 못 깎고 있다가 서원의 기간이 지나자 머리를 깎았는데 거기가 바로 겐그레아였습니다. 뵈뵈를 가리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했는데 일꾼이라는 말의 원문은 일꾼이라는 뜻도 되고 집사라는 말도 됩니다. 성경을 보면 감독이나 장로는 몰라도 적어도 집사 가운데는 여자 집사도 있었습니다. 집사였다면 뵈뵈집사가 되는데 혹 집사가 아니었어도 그 이상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뵈뵈를 가리켜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 부릅니다. 보호자는 말 그대로 지켜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돕는 사람이라고 옮겼는데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 곧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후견인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가까운 고린도에서 한 해 여섯 달 머물며 복음을 전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함께 수고한 사람이 바로 뵈뵈였습니다.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어서 그걸 주님을 위해 쓴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름도 안 나오던 사람인데 바울의 인사 한 두 마디가 숨은 일꾼의 희생과 수고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로마서 같은 이 소중한 편지를 뵈뵈 편에 부친 것 아니겠습니까? 남녀평등의 시대인 지금도 김여사 운운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사람 수에 차지도 않던 시대에 이 중요한 일을 여자에게 맡겼다면 뵈뵈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했는지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번째 언급하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부부지요. 언급은 두 번째지만 문안으로는 처음입니다. 처음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여자입니다. 뒤에 나오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로마 교회에 공적으로 보내는 편지,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할 편지에 여자를 먼저 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유대인으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바람에 멀리 고린도까지 와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 (49-52년)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났는데 마침 아굴라하고 직업이 같아 동업을 하면서 가까이 지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닌지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혹 이미 믿었던 사람이라 해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해 여섯 달을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는 동안 바울에게서 복음의 진리를 잘 배웠을 것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배웠느냐 하면 당시 구약성경 박사로 알려져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을 집으로 불러 성경을 가르쳐 구약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볼로는 이들 부부에게서 성경을 배우자마자 예수가 바로 구세주이신 줄 확신하고는 바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로마로 보낸 57년경 이들은 로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는데도 이들의 집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에게 문안하면서 이 부부의 가정에서 모이고 있던 교회에도 함께 문안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로마서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로마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 걸어서 만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의 사람들이 모여 매주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에 있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니 같이 일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 제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했습니다. 머리가 목에 달려 있으니 목을 내놓은 건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바울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뭐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나에게 복음 진리를 바로 가르쳐 준 사람이니 얼마나 귀찮습니까? 게다가 고린도, 에베소, 여러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을 위해 수고하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인 줄 알았던 거지요.

하나님과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맙다는 인사를 주고받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말을 하나님께만 하지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고맙다는 말을 당연히 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잘 했다” “수고했다” “복 받을 거다” 하는 말만 하지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인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 사람에게 왜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꼭 한 번 예외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한다 했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이방의 모든 교회도 두 사람에게 감사한다 하였습니다. 도대체 바울을 얼마나 챙겨 주었으면 다른 교인들까지 고맙다 하였을까 그저 상상해 볼 따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선교사들이 후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맙다는 말 쓰는 걸 좋게 안 봅니다. 선교사나 우리나라 동역자 아닙니까? 선교사는 몸이 가고 우리는 몸이 못 가니 돈 보내고 기도로 동참하는 건데 왜 몸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맙다 해야 됩니까? 물론 선교 후원을 하면 선교사 생활비도 되니까 고맙기도 하겠지만 그건 나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주는 거니까 고마워할 게 아니지요. 고맙다 해 버리면 내 생활비 보내 줘 고맙소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한 구절이 계속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 사람에게 고맙다 하는 것도 꼭 잘못은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께 수백 번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한 번 했으니 우리도 웬만하면 감사는 하나님께 주로 드리도록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감사보다 잘 했다, 수고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런 식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평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하는 평가도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갖는 생각이나 판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하는 태도도 물론 좋지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또 내가 부당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 하나 하나 해명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은 사실을 알아주시니 괜찮다 하는 건 훌륭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 너무 쉽게 사람을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하고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오해해도 하나님만 바로 알아주시면 됩니까? 내가 정말 떳떳한 경우라면 하나님만 알아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정말 잘못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잘못해 놓고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나는 뭘 해도 옳은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합리화에 아주 능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동기가 순수했으니 괜찮고 크게 잘못된 것도 없으니 괜찮고 다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과장하고 왜곡해 그렇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두고 내린 평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데마는 왜 안 좋게 말했을까, 알렉산더는 왜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했을까, 뵈비나 브리스가 아굴라는 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실을 백 퍼센트 정확하게 꿰뚫어 볼 능력까지 주시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렇지만 바울 제가 아는 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비판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풀 것도 물론 있지만 사람의 평가도 중요하고 사람 앞에서 풀어야 할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도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다가도 누구한테 원망 산 일이 있거든 그걸 먼저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싹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하고만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화 <말양>에 보면 살인자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으면 됐다 하고 사람한테 용서받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영화가 지적하기 전에 주님이 이미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일꾼의 수고와 희생으로 움직입니다. 주님 은혜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일꾼을 통해, 일꾼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통해 하십니다. 본문에는 뵤뵤,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오지만 이름이 안 나오는 숨은 일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데마도 있고 알렉산더도 있고 뵤뵤도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남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고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주위 사람들의 판단에도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속지 않는, 그래서 보다 책임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그것도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다 뵤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모두에게 칭찬 듣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 그리니치 한인교회를 더욱 귀한 건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